사후보도자료

K 컬처에 푹 빠진 日중고생
- 한국어말하기대회 2003 년 개최이래 최다응모기록 -

주일한국문화원(원장 공형식, 이하 문화원)은 수도권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인 「함께 말해봐요 한국어」 도쿄·중고생 대회를 2.3(토) 한국문화원 한마당홀에서 개최했다.

2003 년 대회시작이래, 최다응모수 (190 명)를 기록한 이번 대회에는 1 차 심사를 통과한 44 팀 119 명의 중고생과 지도교사, 가족들 등 300 여명이 참가하였다.

'축제음식'을 주제로 한 대본에 창작을 더해 2 인이 촌극으로 발표하는 '스킷부문'과 6 가지 사진(한국요리, 불꽃놀이, 관광지, 하늘, 벗꽃, 자유사진) 중에 하나를 골라 본인의 평소 생각이나 추억, 관심사를 발표하는 '스피치부문'으로 나뉘어 그동안 갈고 닦은 한국어 실력을 뽐냈으며 일본고등학교의 한국동아리도 대거 참여하여 K-POP 댄스와 연극을 선보였다.

그중에서도 김수현 작가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를 소개하며 "많은 것에 도전하는 만큼 하는 일도 늘어나지만 많은 자극을 받으면서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는 것이 더 즐겁다"라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즐거움에 대해 독학으로 배운 한국어로 이야기한 오가와라 카리나 (히비키가쿠엔고등학교 1 학년) 양이 관객과 심사위원을 매료시키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문화원 공형식 원장은 '일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우호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을 비롯한 청소년들이 한일 양국의 보다 밝은 미래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며 개최소감을 전했다.

본 대회의 결승무대인 「함께 말해봐요 한국어 고교생전국대회 2024」는 도쿄와 오사카를 비롯한 7 개 도시 지역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고교생이 한데 모여 3 월 9 일(토) 문화원 한마당홀에서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

대회 전경